

보 도 자 료

제 목 : 故 탄저테이씨 1주기 추모문화제

주 최 :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일 시 : 2019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

장 소 : 부평역 앞 교통광장

문 의 : 량희(인권운동공간 활

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죽음의 단속으로 사망한 故 탄저테이씨를 기억하며
故 탄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속을 지속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1. 지난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2. 탄저테이씨 사망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탄저테이씨 사망 1주기를 맞아 탄저테이씨를 기억하며, 동시에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법무부를 규탄하는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지난 1년동안 대책위는 탄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직권조사를 통해 탄저테이씨 죽음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을 징계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단속을 중단하고 구조를 우선시 하도록 지침변경,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방지, 단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4. 하지만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관련한 사항만 수용하였을 뿐, 탄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무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책위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모든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로 미뤘습니다.

5. 지난 일 년 간 법무부는 사건에 대해 면피성 보도들만 내보내며,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을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행사자인 자신들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대책위는 탄저테이씨 추모 1주기를 통해 단지 그의 죽음에 멈추지 않고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탄저테이씨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한국 정부와 공권력이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한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정책에 대해 규탄할 예정입니다.

7. 더불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로 사망한 미얀마노동자를 비롯해 올 한해동안 한국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9분에 대한 추모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추모문화제 진행

<1부> 추모기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2부> 규탄집회

사회 :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발언 1. 故 탄저테이씨 사망 1년 경과: 조혜연(건강한 노동세상)

발언 2.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문제: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발언 3. 추모 발언: 소모뚜(미안마노동자복지센터)

추모공연 : 박준

발언 4. 단속추방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발언 5. 연대발언: 쏘갓(크메르 노동 협의회),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헌화

故 판저테이씨 1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
부평역 앞 교통광장

범무부는 판저테이씨 살인단속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판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1부 추모 기도
2부 규탄 집회

주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안마 노동자 판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